

서강학보 입장문

〈 사 설 〉

총추위원장의 서강학보 제재 요청에 대한 입장문

지난 17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 임채운 위원장은 대학언론사로 한 공문을 보내왔다. 서강학보가 총추위 표결 결과 등 내부 정보를 무리하게 입수 및 보도했으므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보도로 강영수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보도지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총추위는 잘못된 인과관계로 후보 사퇴의 책임을 학보에 전가하고 있으며, 학보의 정당한 취재활동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서강학보는 임 총추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서강학보는 지난 9일 “심종혁 후보 14표, 이종진 후보 8표로 총장후보자 추천돼”라는 기사에서 총추위의 표결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이어 지난 10일 강영수 후보의 중도 사퇴를 보도했다. 그러자 11일 법인은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해 학보 기자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학보는 개인적인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법인에게 공식적인 업무협조 공문을 먼저 발송해달라고 답변했다. 이에 17일 임 총추위원장의 이름으로 학보의 언론활동을 제재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학보는 근거 없는 추정과 잘못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임 총추위원장의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 첫째, 임 총추위원장은 총추위 표결 결과 유출에 대한 책임을 학보에게 돌리고 있다. 총추위원의 비밀 유지 규정은 총추위원들에게만 해당되므로,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면 당연히 내부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한 조치 없이 학보의 정당한 취재과정과 보도를 ‘무리한 정보 입수 및 보도’로 정의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애초에 학보의 보도 이전부터 표결 결과가 널리 퍼져있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과연 임 총추위원장이 총추위원들의 무리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둘째, 임 총추위원장은 “학보를 통해 표결 결과가 공개된 것이 후보자 한 명의 사퇴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합니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 총추위원장은 빈약한 논리를 근거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학보 보도가 후보자 사퇴에 영향을 줬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어떻게 ‘규정 보완 및 보도지침 수정’을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서강학보는 서강구성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민주적인 공론의 장 형성을 위해 취재 및 보도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장 선출은 많은 논란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많은 이들이 궁금해 했던 표결 결과에 대해 보도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이에 학보는 ‘진리에의 순종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임 총추위원장은 학보의 언론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취재권 제한을 시도하고 있다. 총추위의 학보 제재와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는 부당한 요구이며, 학보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임 총추위원장의 언론 통제 시도에 대해서 유감이다. 서강학보는 외부 압력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못한 정보가 많다. 서강학보는 서강의 진실을 추구한다.

